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377
----------	------

발의연월일 : 2025. 2. 24.

발 의 자 : 김기현 · 박정훈 · 서명옥
곽규택 · 박성훈 · 송언석
박수민 · 박충권 · 유용원
김석기 · 조승환 · 김기웅
김은혜 · 최은석 · 김희정
김 건 · 강대식 · 서지영
강승규 · 고동진 · 윤상현
박대출 의원(2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전장에 나선 북한 병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청년 수만 명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뿐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통해 알려진 북한군의 파병 실태와 북한 병사들이 처한 현실은 참혹 그 자체이다.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지면서도 ‘해외 훈련’이나, ‘유학’이란 말로 속임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포로는 변절”이라고 세뇌당해 중상을 입고서도 자폭용 수류탄을 떠올리고 있으며, 이미 북한군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다고도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병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북 제재 및 인권 보호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로서,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를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임. 더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의 파병 실태와 북한 병사들이 처한 인권 유린은 참혹 그 자체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즉각적인 전투병 철수를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병사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

에 대한 조사 및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